淸華簡<鄭文公問太伯> 주해*

이연주** · 張崇禮***

<목 차>

1. 머리말
2. <鄭文公問太伯>의 개요와 시대적 배경
3. <鄭文公問太伯> 역주
4. 맺음말

1. 머리말

<鄭文公問太伯>은 2016년 발표된 ≪淸華大學藏戰國竹簡≫ 第六輯 整理報告[1]에 포함된 5편의 전국시기 문헌 중 하나로, 周의 제후국인 鄭나라[2]의 6대

*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음(관리번호-520170472).
**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中國 濟南大學 出土文獻與古代文學研究中心 敎授

1) 淸華簡(淸華大學藏戰國竹簡)은 2008년 淸華大學이 기증받아 2년여 기간에 걸친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을 거쳐 공개한 전국시대 죽간으로, 第六輯에는 <鄭武夫人規孺子>, <鄭文公問太伯>, <子産>, <子儀>, <管仲> 등 5편이 실려 있다. 이들은 모두 춘추시기 역사와 관련된 것들로 전에 보지 못했던 佚籍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 5편 중 <鄭武夫人規孺子>, <鄭文公問太伯>, <子産> 등 3편은 鄭나라의 역사, <子儀>는 秦과 楚의 역사, <管仲>은 齊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李學勤, 2016) 죽간에는 모두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整理者가 내용을 바탕으로 정하였다. 이 중 <鄭武夫人規孺子>는 ≪중국학논총≫ 55집(2017.3)에, <管仲>은 동 학술지57집(2017.9)에 주해논문을 게재하였다.

2) 역사기록에 따르면 鄭나라는 기원전 806년, 周厲王의 아들이자 宣王의 동생인 桓公 友가 서주의 畿內인 현 섬서성 화현 棫林 땅에 봉해짐으로써 세워진 제후국이며, ≪죽서기년≫에 따르면 鄭이라는 국명은 桓公 友가 鄶를 멸하고 鄭父之丘에 거함으로써 얻은 명칭이다. 서주 말기와 춘추 시대 초기에 주 왕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분봉을 받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 주 왕실과 혈연관계가 멀어진 다른 동성 제후국과 달리 왕실에 대한

군주 文公이 병중인 집정대신 太伯을 문안하고 태백이 문공에게 간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六輯에 포함된 <鄭武夫人規孺子>, <子產>과 함께 서주 말기와 동주 초기 주요 제후국이었던 鄭의 역사를 다룬 죽간으로,[3] 태백의 간언을 통해 정나라 초기 군주들의 업적과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간명하게 밝힘으로써 鄭의 초기 역사를 압축해 기술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주 왕실의 동천을 전후한 시기와 동주 초기 역사를 조명하고 있어 당시의 시대상황과 역사적 사실 연구에 있어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본 문헌은 서주 정치문화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은 '규간(規諫)' 전통을 잘 드러내는 문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4] 한편 본 죽간은 청화간에서는 유일하게 동일 필사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가지 저본이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점에서도 출토문헌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5] 본고에서는 <鄭文公問太伯>의 개요와 시대적 배

충성도가 높았다. 桓公이 周幽王의 司徒(地官의 장으로 국가적 敎化와 토지, 부세를 비롯한 民事를 폭넓게 관장. ≪周禮≫에 따르면 군사훈련을 포함해 백성의 동원과 관련된 일도 司徒의 임무임)로 봉직했고, 桓公을 이은 武公과 莊公도 周平王과 桓王의 卿士(집정자)로 봉직했으며, 平王의 東遷시에는 武公이 晉, 秦, 衛 등의 제후와 함께 이를 수행했다. 같은 동성 제후국인 虢(西虢)과 함께 동천한 평왕을 도와 주 왕실을 成周에 정착시켰으며, 왕실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왕실을 대신해 태산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러한 주 왕실과의 관계로 인해 춘추시대 초기에 정나라는 국가간 외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鄭이 현재의 하남성 신정현으로 옮겨 정착한 것은 흔히 평왕의 동천과 함께로 이야기되나 실제로는 이미 초대 환공 때 동방으로의 이주를 시작했다는 자료가 고전에 전하며 아마 유왕 때에는 괵(서괵)과 정 양국 모두 동방에 발을 디뎌놓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이즈카 시케키 외, pp.240-241 참고)

3) <鄭武夫人規孺子>은 鄭나라의 제2대 군주 武公의 사망 후 그의 미망인 武夫人(武姜)이 왕위 계승자인 莊公에게 한 規誡와 이로써 비롯된 조정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子產>은 춘추시대 鄭나라의 정치가였던 子產이 지은 刑書의 함의와 구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한편 ≪清華大學藏戰國竹簡≫第三輯 整理報告의 <良臣>이라는 문헌도 특별히 鄭나라의 良臣을 드러내어 소개하고 있는 등 清華簡의 많은 篇과 內容이 鄭나라와 연관이 있어 이 문헌들이 鄭나라로부터 楚로 유입되었음을 암시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4) 서주가 시작되면서 정치문화에는 일종의 제도화된 '경계가 되는 간언(規諫) 전통이 출현하였다. 이로써 '규간'은 통치자의 정기(正己), 방민(防民)의 중요한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가 군주를 規諫하고 민정을 소통하는 데에 정당한 근거가 되었다. (진래, p.481)

5) 李學勤(2016)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두 본의 문자는 대체로 일치하며 이중 乙本에 자형이 그릇되거나 오류인 것이 비교적 많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상박간의 갑, 을본은 두 명의 필사자가 동일한 판본을 필사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하나의 저본인 것과 다르다.

www.kci.go.kr

경을 먼저 살펴본 후 그 내용을 주해하고자 한다.

2. <鄭文公問太伯>의 개요와 시대적 배경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鄭文公問太伯>은 鄭文公(6대 군주, 재위: BC.672년~BC.628년)이 병중인 집정대신 太伯을 문안하고 태백이 문공에게 간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간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첫 번째 부분(아래 〔간문1〕)에는 문공이 병중인 태백을 문안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부분(〔간문2〕-〔간문5〕)에는 초기 군주들의 치적에 대한 태백의 개괄이, 세 번째 부분(〔간문6〕)에는 태백이 문공에게 간하는 간언이 담겨있다. 문공은 桓公, 武公, 莊公과 邵公, 厲公에 이은 鄭의 6대 군주이며, 문공의 시기는 환공, 무공, 장공의 시기에 鄭이 주 왕실 내에서 크게 그 입지를 강화하고 춘추 초기의 핵심 제후국으로 빠르게 부상했다가[6] 장공 사후 소공, 여공의 후위를 둘러싼 내란으로 국가가 쇠약기에 접어든 시기이다.[7] 이 시기는 아직 秦, 晉, 齊, 楚 등 중원 이외의 주변 지역이 힘을 쌓아 패자로 등장하기 이전 시기로[8] 鄭의 초기 역사에 역사학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시기 鄭의 역사가 동천을 포함한 초기 동주의 역사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춘추시대로 넘어가는 시대

6) (동방 이주를 완성한 이후) 다음 반세기 동안 鄭은 중국 전체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활발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다. (리펑, p.190)

7) 장공의 사후 후위를 둘러싸고 내란이 일어났고, 더욱이 이에 宋 魯, 衛, 蔡, 陳 등의 제후가 개입했기 때문에 중원은 싸움터로 변했고 정의 국력은 쇠약해졌다. (가이즈카 시케키 외, p.245)

8) 중원이란 고대 중국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동주초 시기에는 황하 유역에서도 특히 하남성 내의 지역, 즉 낙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鄭이 내란으로 쇠약기에 접어든 시기) 중원 이외의 주변 지역에서는 서쪽의 秦, 북쪽의 晉, 동쪽의 齊, 남쪽의 楚가 각기 자국의 주변을 개척하거나 소국들을 그 지배하에 두고 큰 힘을 쌓고 있었다. (상기 書, p.245) 晉의 경우, 文侯(재위: 기원전 780년~기원전 746년) 시기 주의 동천을 둘러싼 정국을 주도했으나 이후 분열의 시기를 거치다가 武公과 獻公 시절을 거쳐 文公(재위: 기원전 636년~기원전 628년)에 이르러 패자로 등장한다.

변화[9]와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鄭의 초기 역사를 보면, 환공 때 이미 동방으로의 이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서주 말기 주 왕실의 쇠퇴와 이에 따른 귀족의 동방 이동과 궤를 같이 한다.[10] 이어 무공 대에는 주 왕실의 동천을 수행하고 주 왕실의 卿士로 왕실 부흥에 힘쓰는 한편 본 죽간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변으로 적극 강토를 넓히고 패자로 군림한다.[11] 한편 이처럼 두각을 나타낸 정은 무공에 이은 장공 대에 이르러 주 왕실과 본격적인 갈등과 충돌을 빚게 되는데[12] 이는 최종적으로 장공이 주 왕실에 대한 朝槿을 그만두어 버리고 이에 노한 주 환왕이 蔡, 衛, 陳 등의 제후 군대를 모아 직접 정나라 정벌에 나섰다가 오히려 패배하고 부상당함으로써 주 왕실의 권위가 결정적으로 실추되고 춘추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13] 본 죽간은 태백의 입을 통해 이들 초기 군주들

---

9) 보통 주나라(西周)가 犬戎의 공격으로 수도를 鎬京(宗周)에서 동쪽의 洛陽(成周)으로 천도한 기원전 770년 이후부터 전국시대 이전까지(기원전 770년~기원전 453년)를 춘추시대라고 하지만, 그 이름이 연유한 ≪春秋≫는 기원전 722년부터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주 왕실이 동천한 기원전 770년부터 ≪春秋≫의 기록이 시작되는 기원전 722년까지는 ≪春秋≫前史에 해당한다. (상기 書, p.239) 이 시기는 齊桓公(재위: 기원전 685년~기원전 643년)을 필두로 하는 패자의 출현과 尊王攘夷를 기치로 하는 춘추 질서가 확립되기 이전의 시기로 쇠퇴한 주 왕실과 핵심 제후국간에 정치적 이해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본격화하고 주 왕실의 왕권이 실추되는 시기이다.

10) 서주 말기 귀족의 동방 이동은 유왕 때의 서주 멸망이라는 한 시점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아마 여왕의 망명과 공화행정(共和行政)이라는 대사건이 쇠퇴해가는 주 왕실의 귀족에게 큰 동요를 일으켜 동방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서주 말기에는 주 왕조의 쇠퇴를 틈타 북방으로부터 견융 등이 남하를 강화하여 그것이 점차 왕실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동방으로의 유출을 촉진시켰다. 정환공이 이미 왕실이 멸망하기 이전에 동방으로의 이주를 의도한 것도 이러한 정세를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상기 書, pp.241-242) 정환공의 동방 이주와 관련해서는 ≪국어・정어≫ '정백이 정환공을 위해 興衰를 논하다'에 당시의 정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경과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리펑(2017)은 "정나라의 환공은 동쪽 수도 성주(成周)에 자리한 周의 궁정에서 오랜 기간 司土(司徒. 서주 金文에 종종 司徒로 기록되었다 - 바이두 백과)로 재임한 것을 활용하여 成周 외곽의 임시 이전지로 자신의 재산을 단계적으로 옮겼다"라고 하고 있으며(pp.189-190), 이중톈(2015)은 "환공은 서주 왕실을 위해 힘써 일하면서도 자신의 나라와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 왕실 사관 史伯의 충고에 따라 본래의 영토를 신정으로 옮겼다"고 하고 있다. (p.39)

11) 〔간문3〕世及吾先君武公, 西城伊澗, 北就鄔、劉, 縈軛蔿、邘之國, 魯、衛、蓼、蔡來見。

12) 이에 대해서는 ≪좌전≫은공3년 여름, 은공6년 겨울, 은공11년 가을7월, 환공원년 봄, 환공5년 여름에 관련 기록이 전한다. 본 죽간에는 〔간문4〕에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3) ≪좌전≫환공5년 여름에 이 정벌의 자세한 경과가 기록되어 있다. 진래(2008)는 "繻葛之戰 이후, 주 천자의 위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후의 힘은 날로 강대해졌다"고

www.kci.go.kr

의 치적과 이어지는 소공, 여공 시기의 내분 등 정나라 초기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으며[14] 이를 통해 주 왕실과 정나라 사이의 갈등을 포함한 동주 초기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다.

3. 淸華簡 ＜鄭文公問太伯＞ 역주[15]

【간문1】[16]

子人成子〔1〕既死, 太白（伯） 堂 （當）邑〔2〕。太白（伯）又（有）疾, 咨（文）公〔3〕 迬 （往） 䎽 （問）之。君若曰：“白（伯）父, 不 孝（穀） 學 （幼）弱, 悉（閔）〔4〕 甕 （喪） 虐 （吾）君, 卑（譬）若雞 雛 （雛）〔5〕, 白（伯）父是〔6〕被複（覆）〔7〕, 不 孝（穀）以能與 遽 （就） 宗 （次）〔8〕。今天爲不惠, 或爰（援）〔9〕肰（然）與不 孝（穀）爭〔10〕白（伯）父。所〔11〕天不豫（舍）〔12〕白＝父＝（伯父, 伯父）而□□□□□□□□□□□ 孝 （穀）。”〔13〕

子人成子既死, 太伯當邑。太伯有疾, 文公往問之。君若曰：“伯父, 不穀幼

하고 있다. (p.401)

14) 본 간문은 ≪좌전≫, ≪국어≫ 등 문헌에 나오는 많은 기록들을 증명해줄 수 있다. ≪춘추≫가 魯隱公 원년(鄭莊公23년, 기원전 722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정나라 역사는 ≪국어·정어≫의 기록 외에는 단편적인 기록 밖에 없다. 본 문헌은 정나라 초기 역사 증 兩周 교체기의 정나라 역사 연구에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李學勤, 2016)

15) 본 역주는 淸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淸華大學藏戰國竹簡(六)≫(上海, 中西書局, 2016)과 그 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구해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작업을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말로 역주하였으며 개요와 시대적 배경 등을 정리하였다. 주석에서 정리자나 개별 학자의 견해를 인용한 경우는 이를 명시하였다.

16) 문공이 병중인 태백을 문안하는 내용이다. 태백의 비호로 보위를 이어받아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을 말하고 하늘이 태백을 데려가려 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뒷부분 11자가 누락되어 해당 부분의 의미가 불확실하다.

www.kci.go.kr

弱，閔喪吾君，譬若雞雛，伯父是被覆，不穀以能與就次。今天爲不惠，或援然與不穀爭伯父。所天不舍伯父，伯父而□□□□□□□□□□□穀。”

【주석1】

〔1〕整理者(2016)[17]：子人成子의 子人은 氏이고, 成은 諡이다. ≪春秋≫桓公14年 (鄭厲公3年) 에 “夏五, 鄭伯使其弟語來盟(여름 5월에 鄭伯이 아우인 語를 보내어 맹약을 맺게 하였다)”고 했다. ≪左傳≫에 “夏, 鄭子人來尋盟, 且脩曹之會(여름에 정나라의 子人이 와서 맹약을 다지고, 아울러 曹의 회합에서 맺은 우호를 重修했다)”고 했다. 그 사람이 鄭厲公의 母弟로, 名이 語이며, 字가 子人으로, 子人氏의 시조이다. 子人語는 鄭文公의 叔父인데, 簡文에서의 ‘子人成子’가 아닐까 싶다.

〔2〕整理者(2016)：≪左傳≫에 “當國”이라는 말이 종종 보이는데, 襄公27年의 杜注에 “정권을 잡다(秉政)”라고 했다. ‘當邑’과 ‘當國’은 의미가 유사하며, 太伯이 子人成子를 이어받아 執政했음을 말한다.

〔3〕整理者(2016)：鄭文公의 이름은 捷이며, ≪史記・鄭世家≫에서는 ‘踕’으로 썼고, 鄭厲公의 아들이다. 簡文에서는 ‘文公’이라고 했는데, 이는 追稱이다.

〔4〕整理者(2016)：閔은 ≪左傳≫宣公12年의 杜注에 “親喪은 喪을 당하다(憂)의 뜻”이라고 했다. (따라서 閔喪은 親喪을 겪음을 말한다)

〔5〕整理者(2016)： 는 ‘雛’의 통가이다.

〔6〕網友‘blackbronze’：‘是’字는 그 글자대로 보아도 되며, 강조 또는 加重의 語氣를 나타낸다.[18]

〔7〕整理者(2016)：被覆은 ≪詩・生民≫의 ‘覆翼((새들이) 날개로 덮어주고 몸 밑에 깔아주다)’과 같은 의미이다.

〔8〕整理者(2016)：簡文의 ‘就次’는 보위를 이어받아 군주가 됨을 말한다.

〔9〕整理者(2016)：援은 ≪說文≫에서 “(引)의 뜻”이라고 했다.

17) 본고에서 인용한 整理者의 주장은 모두 李學勤主編≪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中西書局, 2016)을 참고했다.

18)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32樓, 2016.04.22.

www.kci.go.kr

〔10〕整理者(2016): 爭은 乙本에는 '請'으로 되어 있다.

〔11〕整理者(2016): 所는 假設을 나타내며, ≪左傳≫僖公24年의 "所不與舅氏同心者, 有如白水(만약 그대와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이 백수의 신이 벌을 내릴 것이다)"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12〕整理者(2016): 豫는 '舍'의 통가로, "버리다(棄)"의 뜻이다.

〔13〕整理者(2016): 이 문장은 '만약 하늘이 나와 伯父를 다투고 놓아주지 않는다면'의 뜻이며 '而'이하 약 11글자가 殘失되었다.

【간문 번역1】

子人成子가 죽은 후, 太伯이 執政했다. 太伯이 병이 들었고 鄭文公이 찾아가 병문안을 하였다. 文公이 말하기를 "伯父[19], 나는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도 우리 군주(吾君)를 여의고 마치 작은 병아리 같았으나 伯父의 비호 덕분에 보위를 이어 받아 군주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이 은혜롭지 못하게도 伯父를 끌어당겨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만약 하늘이 伯父를 놓아주지 않는다면……"이라고 했다.

【간문2】[20]

19) 李學勤(2016)에 따르면, 간문에 "子人成子旣死, 太伯當邑"이라고 한 것을 볼 때 태백은 아마도 子人成子의 장자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문공의 형제 항렬에 해당한다. 간문에서 문공이 태백을 '伯父'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좌전≫ 장공14년에 鄭厲公이 대부인 原繁을 '伯父'라고 칭한데 대한 楊伯峻의 ≪춘추좌전·주≫에서의 풀이를 참고할 때 나이가 많은 대부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 앞 〔간문1〕의 문공의 말을 이어받아 태백이 간언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먼저 신하된 자로써 군주에게 간언함이 마땅함을 비유를 들어 강조한 후 정나라의 초대 군주인 환공의 치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 왕실의 동천 준비 시기 내지 鄭의 동방 이동 시기의 일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간문2〕의 기술을 바탕으로 劉光(2016)은 정환공의 동천(동방 이동)은 주 평왕의 명을 받들어 成周 부근을 경영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주 평왕의 동천을 위해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 과정에서 왕실을 위해 '勳'을 세웠고 그래서 주의 동천이 晉나라와 鄭나라에 의지했다는 주 왕실의 기록이 남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아울러 본 간문에 기술된 환공의 정벌이 동천 노선을 기술하고 있다고 보았다. 간문이 간략하고 사건이 압축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간문 자체만으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太白（伯）曰：“君，老臣□□□□母（毋）言而不 堂 （當)。故（古）之人又（有）言曰：‘爲臣而不諫，卑（譬）若 䝧 （饋)〔1〕而不 䤈 （酳)〔2〕。〔3〕’昔 虛 （吾）先君 亘 （桓）公， 遂 （後）出〔4〕自周〔4〕，以車七 𩢋 （乘)，徒 卅 ＝（三十）人，故（敷）亓（其）腹心〔5〕， 奮 （奮)亓（其） 䏐 （股） 抾 （肱)，以 䪷 （擾)〔6〕於 㐺 （衆)𠂤（偶)〔7〕。𢧵（戴） 𦥯 （冑)𩌏（披） 虣 （甲)〔8〕，乂（乂)〔9〕戈盾以 㵘 （造)〔10〕勛。 戰 （戰）於〔11〕魚羅（麗)〔12〕， 虛 （吾)〔乃〕䨼（獲) 𨛭 （函)〔13〕、 郋 （訾)〔14〕，𨋥（復)〔15〕車 𨶒 （襲)〔16〕 𨓈 （虢)〔17〕，克鄶， 𡪠 ＝（廟食)〔18〕女（如)〔19〕容 袿 （社)之凥（處)，亦 虛 （吾）先君之力也。

太伯曰：“君，老臣□□□□毋言而不當。古之人有言曰：‘爲臣而不諫，譬若饋而不酳。’昔吾先君桓公，後出自周，以車七乘，徒三十人，敷其腹心，奮其股肱，以擾於衆偶。戴冑披甲，乂戈盾以造勛。戰於魚麗，吾〔乃〕獲函、訾，復車襲虢、克鄶。廟食如容社之處，亦吾先君之力也。

【주석2】

〔1〕石小力: ‘ 䝧 ’字는 처음 나온 글자로, ‘饋’字의 異體가 아닐까 생각된다.[21]

〔2〕 䤈 은 ‘酳’의 통가이다. ‘ 䤈 ’은 從戌得聲이며, 戌은 心성모 物운부에 속한다. ‘酳’은 從胤得聲으로, 胤은 喩성모 眞운부에 속한다. 心성모와 喩성모는 관계가 밀접하다. 物운부와 眞운부는 旁對轉에 속한다. ≪廣韻・震韻≫에 “酳은 술로 입가심을 하다(酒漱口)의 뜻”이라고 했다. ≪禮記・樂記≫에 “食三

21)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6.04.16.

www.kci.go.kr

老五更於大學, 天子袒而割牲, 執醬而饋, 執爵而酳(태학에서 정직, 강, 유 삼덕을 갖춘 三老와 모, 언, 시, 청, 사 오사를 갖춘 五更을 불러 음식을 대접할 때는 천자가 웃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 직접 희생물을 잘라 요리하며, 손수 육장(醬)을 가지고 대접하고, 술잔을 들어 입가심 술을 주고)"라고 했는데, 孔穎達 疏에 "執爵而酳이라는 것은 밥을 다 먹으면 천자가 술잔을 들어 입가심 술을 주다(食訖天子執爵而酳口)를 이른다"고 했다. ≪漢書・賈山傳≫에 "然而養三老於大學, 親執醬而餽, 執爵而酳(三老를 태학에서 받들며, 친히 육장(醬)을 가지고 대접하고, 술잔을 들어 입가심 술을 주고)"라고 했는데, 顔師古 注에 "酳이라는 것은 술을 아주 조금 마시는 것을 이르는데 식사 후에 입가심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餽는 또한 곧 饋字이다. "執醬而饋, 執爵而酳"은 먼저 식사를 드리고 후에 술로 입가심을 하여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簡文의 "爲臣而不諫, 譬若饋而不酳"은 만약 신하된 자가 간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尊者께 식사를 드리면서 입가심할 술은 드리지 않음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간언을 드리는 목적은 尊者로 하여금 폐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함이고, 입가심의 목적은 尊者로 하여금 오점을 제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둘은 비유가 절묘하며 문장이 暢通하다.

〔4〕程浩(2016)[22]: '後出'은 ≪鄭世家≫의 "友初封於鄭(友가 처음으로 鄭邑의 봉토를 받았다)" 중의 '初封'과 대응되는 말로, '初封'과 '後出'은 鄭나라 자체의 역사를 시간선상에서 대비시켜 한 말이다. ≪左傳≫昭公16年에 子產의 말이 실려 있는데, "昔吾先君桓公與商人皆出自周(과거에 우리 선군 환공이 상나라 사람들과 함께 주나라의 기내(畿內)로부터 동쪽으로 옮기어 왔습니다)"라고 했다. 여기서 '出周'가 말하고 있는 것은 桓公이 宗周의 처음 封地로부터 伊洛(낙양 주변)으로 동천한 일을 말한다.

〔5〕網友'無痕': '故'는 '敷'의 통가로 볼 수 있다. "敷其腹心"은 古書에서의 "布其腹心"이다. ≪左傳≫昭公26年에 "敢盡布其腹心及先王之經, 而諸侯實深圖之

www.kci.go.kr

22)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6.04.16.

(감히 속마음과 선왕의 명령을 있는 대로 펼치니 제후들께서는 실로 깊이 잘 생각해보오)"라고 했는데, 古聲字와 甫聲字는 전래 古書와 出土文獻에서 서로 통용된 예가 모두 있다. 高亨의 ≪古字通假會典≫ p.863와 p.866 참조, 白於藍의 ≪戰國秦漢簡帛古書通假字彙纂≫ p.224 참조.[23]

〔6〕劉雲(網名"苦行僧")은 <鄭文公問太伯>簡5의 '〔犬肉頁〕'은 從'犬', '賁'聲으로 보아야 하며, '獷'의 뜻으로 풀이 된다고 했으나,[24] 顜 은 마땅히 '擾'의 통가로 보아야 하며, 편안하게 안정시키다(安撫)의 뜻이다. ≪尙書・周官≫에 "司徒掌邦敎, 敷五典, 擾兆民(사도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니 五典을 펴서 만백성을 편안히 하다)"라고 했는데, 孔傳에 "天下의 만백성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다"라고 풀이하였다.

〔7〕 放 은 從允夕聲의 글자로, '衆'의 통가이다. 夕은 端성모 冬운부이며, 從夕聲의 終, 汝等은 衆과 마찬가지로 章성모, 冬운부와 같다. 偶는 동년배, 무리의 뜻이다. ≪正字通・人部≫에 "偶는 같은 연배를 또 偶라고 한다"고 했다. ≪史記・黥布列傳≫에 "迺率其曹偶, 亡之江中爲羣盜(그런 뒤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양자강 부근으로 달아나서 떼를 지어 도둑질을 일삼았다)"고 했는데, 司馬貞 索隱에 "曹는 무리(輩)의 뜻이고, 偶는 같은 부류(類)의 뜻이다. 한 패인 무리(徒輩之類)를 말한다"고 했다.

〔8〕劉雲(網名'苦行僧'): <鄭文公問太伯>簡5에 "〔竹+執〕胄鼙(被)甲"의 '鼙(被)'는 ee와 bulang 두 학자가 밝혀냈다.[25] 이렇게 '鼙(被)甲'을 연이어 씀으로 해서 문장의 의미가 한결 분명해졌고 문맥이 한결 자연스러워졌다. 이를 바탕으로 앞의 '〔竹+執〕胄'를 분석해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竹+執〕胄'는 의심할 여지없이 '투구 같은 것을 쓰다'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문제는 '〔竹+執〕胄'의 '〔竹+執〕'을 마땅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인데, 여기서 '〔竹+執〕'은 '戴'의 통가로 추정된다. '〔竹+執〕'은 從'竹', '執'聲이고, '戴'는 從'異'聲

23)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淸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6樓, 2016.04.17.
24)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淸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35樓, 2016.04.24.
25) 'ee'의 견해는 <淸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帖5樓(2016.04.17)에 있으며, 'bulang'의 견해는 7樓(2016.04.17.)에 있다.

www.kci.go.kr

이다. '執'聲字와 '異'聲字는 돌려서 서로 통할 수가 있다. '執'聲字와 '立'聲字는 서로 통하는데, 陳劍이 上博簡≪容成氏≫簡14와 15에서 '埶'을 '笠'의 통가로 풀이한 것과 같다. '立'聲字와 '異'聲字는 서로 통할 수 있는데, 마치 古書에서 '翌日'의 '翌'을 주로 '翼'으로 쓰는 것과 같다.[26]

〔9〕徐在國(2017): 簡文의 '乂'은 다스리다(治)의 뜻이다. "乂戈盾"은 즉 戈盾을 손질하고 정리하다의 뜻이다.

〔10〕整理者(2016): ' 嫥 '字는 從早得聲으로, '造'의 통가로 풀이해본다. ≪尙書・君奭≫의 정현 注에 "이루다(成)의 뜻"이라고 했다.

〔11〕整理者(2016): '於'와 '以'는 같은 뜻으로, ≪詞詮≫(p.431)에 보인다.

〔12〕整理者(2016): '魚麗'는 陣名이다. ≪左傳≫桓公5年(鄭莊公37年)에 "曼伯爲右拒, 祭仲足爲左拒, 原繁高渠彌以中軍奉公, 爲魚麗之陳(만백이 우측 부대를 맡고, 채중족이 좌측을 지휘했으며, 원번과 고거미가 중군을 지휘하여 장공을 따르게 하여 魚麗의 진법[27]을 펼쳤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간혹 地名이라고도 한다.

〔13〕整理者(2016): 鄗 은 ≪說文≫에서 '柬'은 "從口聲이며, '含'의 통가"라고 했는데, 같은 從口聲의 '函'자의 통가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函冶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곳은 春秋시기 晉나라 范氏邑이었으며, ≪國語・晉語九≫公序本과 ≪說苑・貴德≫에 "範、中行有函冶之難(범씨와 중항씨에게는 함야의 난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다.

〔14〕整理者(2016): 邶 는 '訾'의 통가로, 지금의 河南 鞏縣에 있다.

〔15〕輹은 '復'의 통가로, 되돌아오다(返)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復은 되돌아오다(返)의 뜻"이라고 했으며, ≪小爾雅・廣言≫에 "復는 돌아오다(還)의 뜻"이라고 했다.

---

26)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30樓, 2016.04.22.

27) 편(偏)을 앞에 배치하고 오(伍)를 뒤에 배치하여 편과 편 사이의 빈틈을 오가 뒤따라가며 메우도록 한 전법(전차 25乘이 한 偏이 되고 병졸 5인이 한 伍가 된다)으로 마치 물고기가 서로 나란히 붙어(漁麗) 나아가는 듯한 데서 온 이름으로 보인다. 한 伍의 병졸 수(125인이라고도 한다)를 비롯해 여러 이설이 있다.(장세후, p.240, 주27 참고)

〔16〕襲은 습격하여 취하다(襲取)의 뜻이다. ≪春秋≫襄公23年에 "齊侯襲莒(제나라 제후가 거나라를 습격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杜預 注에 "輕行掩其不備曰襲(몰래 보이지 않게 다가가서 준비되지 않았을 때 치는 것을 襲이라고 한다)"고 했다.

〔17〕 은 '瀌'字로 추정된다. ≪說文≫에 "瀌은 물이 갈라져 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段注에 "물이 나뉘어 갈라져 가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瀌은 '虢'의 통가이다. ≪漢書・地理志≫注에서 臣瓚을 인용하여 "幽王旣敗, 二年而滅會, 四年滅虢, 居於鄭父之邱, 是以爲鄭桓公(幽王이 이미 패하고 나서 2년 후에 會나라를 멸하였고 4년 후에 虢나라를 멸하였다. 이후 鄭父之邱로 이주하여 거하였는데, 바로 鄭桓公이다)"라고 했다. 또≪漢書・地理志≫에 "後三年, 幽王敗, 桓公死, 其子武公與平王東遷, 卒定虢會之地(이후 3년이 지나서 幽王이 패하고 桓公이 죽었으며, 그 아들 武公과 平王이 東遷하여 마침내 虢, 會의 땅에 정착했다.)"고 했다.

〔18〕單育辰(網名"ee"): (=)은 '廟食'의 통가이다. ≪史記・滑稽列傳≫에 "廟食太牢(사당에서 태뢰로써 제사지내고)"라고 했으며, ≪漢書・淮南衡山濟北王傳≫에 "高皇帝之神必不廟食於大王之手(高皇帝의 神은 필시 대왕이 올리는 제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모두 典籍에 '廟食'이 사용된 예이다. 간문은 鄭이 鄶를 쳐서 이긴 후에 비로소 얻은 땅에서 先祖의 사당에 血食을 올렸다(國典으로 제사지냈다)는 말로 이는 뒤에 나오는 "如容社之處"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28]

〔19〕如는 접속사로, '與'나 '和'에 해당한다. 王引之≪經傳釋詞≫ 卷七에 "如는 더불어(與)와 같다"고 했다.

【간문 번역2】

太伯이 말하기를 "君主시여, 늙은 신하인 제가 ……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옛말에 이르기를 '신하된 자로 간언을 드리지 않는 것은 마치

28)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36樓, 2016.04.23

www.kci.go.kr

尊者께 음식을 올리면서 입가심할 술을 드리지 않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先君이신 桓公께서는 후에 周를 나와[29] 戰車 7乘과 步兵 30인을 거느리고 자신의 깊은 속마음(마음 속 뜻)을 드러내고 마음과 힘을 다해 떨쳐 일어나 주위의 무리를 편안히 안정시켰습니다.[30]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위에는 갑옷을 걸치고, 무기를 손질하고 정리하여 왕실에 공훈을 세웠습니다.[31] 어리의 진법(魚麗陣)을 펼쳐 싸워 우리는 函과 訾 두 곳을 점령했고, 수레를 돌려 虢(동괵)을 습격해 취하고 鄶를 공략했습니다.[32] 그리하여 선조들의 사당(廟)에 血食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능히 사(社)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33] 참으

29) 정리자는 이를 정이 다른 제후국에 비해 늦은 시기에 분봉되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위 〔주석2〕〔4〕에서 인용한 ≪左傳≫ 昭公16年의 기록 등을 참고할 때 주의 동천을 준비하고 더불어 정이 동방으로 이동하던 시기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듯하다.

30) 당시 환공이 주 왕실의 핵심 측근으로 司徒로 봉직했음을 고려할 때 여기서 '衆偶'란 서주 말기의 혼란한 정치상황에서 동요를 보이던 주변 邦國의 제후나 서주 귀족들을 의미하거나 주 왕실의 동천을 추진하는 과정에 동참한 제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병력으로 본다면 戰車 7乘과 步兵 30인은 작은 규모라 하겠으나, ≪국어·정어≫ '정백이 환공을 위해 興衰를 논하다'에 "(주 왕실의 禍難을 구실로 삼아 처자와 재화를 虢(동괵)과 鄶에 둔 후 이들이 교횡하고 재리를 탐한 나머지 그대를 배반하면) 그대가 成周의 군사를 이끌고 가 천자의 명을 내세워 그들의 죄를 토벌하면(君若以成周之衆, 奉辭伐罪)"이라고 한 것이나 ≪좌전≫은공9년에 후대 장공 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송공이 주나라 천자를 조현하지 않았는데 정백이 왕의 좌경사로 있었기 때문에 주나라 천자의 명으로 토벌하고 송나라를 쳤다.(宋公不王, 鄭伯爲王左卿士, 以王命討之. 伐宋)"라고 한데서 보듯 당시 정은 주 왕실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천자의 명을 내세워 제후국을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한편 王寧(2016a)은 桓公이 周로부터 나오면서 단지 '전차 7승, 보병 30인'에 기댔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죽서기년≫의 기록은 정 환공의 立國 초기에 晉 文侯의 도움으로 정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다. 鄭이 점진적으로 강국으로 커나갔음을 보여주는 구절로도 생각된다.

31) ≪좌전≫희공24년에, "정나라는 平王이 서울을 낙읍으로 옮기었을 때와 惠王이 서울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을 때 공훈을 세움이 있었다.(鄭有平惠之勳)"라는 언급이 있다. 이는 정 武公과 厲公 때의 일을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보다 앞서 정 환공 때의 주 왕실에 대한 공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한편 司徒의 주요 임무인 교화(敎)는 정치 측면에서 볼 때 서주사회를 지탱한 종법질서의 유지와 긴밀히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는바 여기에서 "무리를 안정시켰다"는 구절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종법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32) 劉光(2016)은 이 부분(吾〔乃〕獲函、訾, 復車襲虢、克鄶)을 동천 노선에 대한 기술로 보았다. 한편, 리펑(2017)은 "서주의 몰락 이후 무공은 기원전 767년에 소국 회와 동괵을 정복하고 두 국가의 영토에 걸친 자리에 정나라를 재건설한다"고 하여(p.190) 회와 동괵의 정복과 정의 재건 시점과 관련해 기존의 역사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왔음을 알게 한다.

33) "제후에게 사직이 있다면 나라가 있는 것이고, 사직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後漢書·

로 선군께서 애쓰신 결과입니다"라고 했다.

【간문3】[34)]

枼（世）及 虗 （吾）先君武公，西 鹹 （城）洢（伊）〔1〕 閞 （澗）〔2〕，〔3〕北 邍 （就）〔4〕 郯 （鄔）〔5〕 鄙 （劉），縈〔6〕厄 （扼）〔7〕 郢 （蔿）〔8〕、竽（邘）〔9〕之國，魯、 衞 （衛）、鄝（蓼）〔10〕、 鄒 （蔡） 𡗗 （來）見。

世及吾先君武公，西城伊澗，北就鄔、劉，縈軛蔿、邘之國，魯、衛、蓼、蔡來見。

【주석3】

〔1〕洢는 즉 伊水이다.

〔2〕澗은 ≪詩・召南・采蘩≫에 "於以采蘩？於澗之中(어디서 흰 다북쑥을 뜯을까요? 산골짜기 물가에서요)"라고 했는데, 毛傳에 "산골짜기의 계곡물을 澗이라 한다."고 했다.

〔3〕伊澗은 곧 伊闕로 추정되며, 지금의 河南 洛陽市 남쪽이다. 두 산이 마주 보고 있어서 마치 궐문과 같으며 그 사이로 伊水가 흘러 이름이 붙은 것이다. ≪水經注・伊水≫에 "伊水又北入伊闕. 昔大禹疏以通水, 兩山相對, 望之若闕, 伊水歷其間北流, 故謂之伊闕矣. 春秋之闕塞也(伊水는 또 북쪽으로 흘러 伊闕로 들

志・祭祀下≫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 '사직'에서 재인용) 종묘와 사직은 전통시대에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로 간문의 이 구절이 鄭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廟(종묘)를 건립하고 토지신에게 제사지내는 社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만일 그렇다면 王寧(2016a)의 주장처럼 이때 비로소 鄭나라가 세워졌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王寧(2016a)은 ≪사기・정세가≫에서 "鄭桓公友者, 周厲王少子而宣王庶弟也. 宣王立二十二年, 友初封於鄭"이라고 하여 정환공이 周宣王22년 鄭에 봉해졌다고 한데 대해 선왕은 友에게 단지 몇몇 관직을 봉했을 뿐 정나라에 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이의 근거로 본 죽간의 이 구절과 고본≪죽서기년≫에 따르면 왕자 友가 봉해진 나라 이름이 '鄭'인 것은 鄶를 멸하고 鄭父之邱에 거했기 때문에 얻은 명칭임을 들고 있다.

34) 환공에 이은 武公대의 치적과 이 시기 鄭나라의 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어간다. 옛날에 大禹가 물을 통하게 하였는데, 두 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보기에 마치 궐과 같았고 伊水가 그 사이를 거쳐 북쪽으로 흘렀으며 그래서 伊闕이라고 불렀다. 春秋시대의 闕塞이다)"라고 했다. 伊闕은 지리적 위치가 아주 중요해서 洛陽의 門戶가 되었다. 鄭武公 때 이곳에 城을 쌓았는데, 혹자는 平王이 東遷한 까닭이라고 했다.

〔4〕就는 향하여 나아가다(趨向), 도달하다(到)의 뜻으로, 여기서는 점령하다를 가리킨다.

〔5〕整理者(2016): ≪左傳≫隱公11年(周桓王8年, 鄭莊公32年)에 "王取鄔劉蔿邘之田于鄭, 而與鄭人蘇忿生之田: 溫原絺樊隰郕欑茅向盟州陘隤懷.(주 환왕은 오・유・위・우의 땅을 정나라로부터 빼앗고 대신 정나라에 소분생의 땅인 혼・원・치・번・습성・찬모・향・맹・주・형・퇴・회를 주었다)"고 했다. 鄔, 劉, 蔿, 邘 네 곳은 당시 鄭邑으로, 簡文의 郊, 鄙, 郢, 竽이다.[35] 鄔는 妘姓으로 ≪國語・鄭語≫에 보인다. 典籍에서 간혹 '鄢'으로도 쓴다. ≪國語・鄭語≫에서 史伯이 鄭桓公에게 말한 10개 성읍 중 '鄔'는 公序本[36]에는 '鄢'이라고 되어있다. 劉나라는 지금의 河南 偃師 서남쪽에 있다. 周匡王(재위: 기원전 613~기원전 607년)이 劉康公을 이곳에 봉했다.

〔6〕縈은 얽히다(纏繞)의 뜻이다.

〔7〕厄은 '扼'의 통가이며, 움켜쥐다(掐住), 움켜잡다(握住)의 뜻이다. 縈扼은 簡文에서 제압하다(控制)의 뜻이다.

〔8〕整理者(2016): 郢 (毁)는 曉성모 微운부의 글자로, 匣성모 歌운부의 '蔿'자의 통가이다. 지금의 河南 孟津縣 동북쪽에 있다.

〔9〕整理者(2016): 邘는 지금의 河南 沁陽縣 서북쪽에 있다.

〔10〕吳良寶(2017): 簡文의 '鄝'나라는 姬姓의 東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35) 〔간문3〕을 참고하면 무공 때 정이 취한 이들 땅을 장공 대에 이르러 주 환왕이 교환 명목으로 빼앗았음을 알 수 있다. ≪좌전≫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군자는 이 때문에 환왕이 정나라를 잃을 것임을 알았다(君子是以知桓王之失鄭也)"고 하고 있다.

36) 公序本은 ≪國語≫의 한 版本으로, 公序는 北宋때 사람 宋庠의 字이다.

www.kci.go.kr

【간문 번역3】

先君이신 武公 대에 이르러서는 서쪽으로 伊闕에 城을 쌓고, 북쪽으로 鄔와 劉를 점령했으며, 蔿와 邘나라를 제압했고, 魯, 衛, 蓼, 蔡 등이 와서 배현(拜見)하였습니다.

【간문4】[37)]

枼 (世) 及 虘 (吾) 先君 牀 (莊) 公, 乃東伐齊 藿 之戎〔1〕爲 敢 (徹)〔2〕, 北 鹹 (城) 郔 (溫)、原〔3〕, 徬 (遺) 釦 (陰)〔4〕、桑 (喪)〔5〕 宏 (次)〔6〕, 東啓遺 (隤)〔7〕、樂, 虘 (吾) 达 (逐) 王於 鄗 (葛)〔8〕。

世及吾先君莊公, 乃東伐齊 藿 之戎爲徹, 北城溫、原, 遺陰、喪次, 東啓隤、樂, 吾逐王於葛。

【주석4】

〔1〕劉光(2016): 簡文에 기록된 鄭莊公이 정벌한 "齊 (濟) 藿之戎"과 ≪左傳≫隱公9年에 鄭나라가 막은 北戎과 관련이 없으며, 濟水 일대의 戎일 것이다. 濟水 일대의 戎은 春秋 초기에는 지금의 山東 曹縣 부근이 중심 지역이었으며, 그 활동범위는 대략 魯나라 서쪽, 鄭나라 동쪽의 濟水유역 및 그 부근 지역이다.

〔2〕撤은 다스리다(治), 통치하다(治理)의 뜻이다. ≪詩・大雅・崧高≫에 "王命召伯, 徹申伯土田(임금님께서 소백에게 명하시어 신백의 땅과 밭 부세를 정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毛傳에 "徹은 다스리다(治)의 뜻"이라고 했으며,

37) 무공에 이은 莊公대의 치적과 이 시기 주 왕실과의 갈등의 표출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 왕실(환왕)의 정나라 정벌 사건에 대해, "우리는 長葛의 전투에서 周王을 내쫓았습니다(吾逐王於葛)"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훗날 춘추 시기에 겉으로나마 尊王攘夷를 내세웠던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당시 주 왕실의 위상 실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게 한다.

鄭玄 箋에는 "治라는 것은 그 井과 牧을 바르게 하고 그 賦稅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詩・大雅・江漢≫에 "式辟四方, 徹我疆土(온 세상을 평정하고 우리 땅의 세금 걷게 하셨다)"라고 했다.

〔3〕整理者(2016): 溫과 原은 周桓王이 鄭나라 사람 蘇忿生에게 준 땅으로, 지금의 河南 溫縣과 濟源縣의 북쪽에 있다.

〔4〕整理者(2016): 平陰津으로 추정되며, 河南 孟津의 동북쪽에 있다.[38]

〔5〕石小力(2016): 이는 곧 뽕나무(桑樹) '桑'이며, 從木, 喪聲의 글자이다.[39]

〔6〕馬楠(2016): '遺'는 잃다(亡)로 풀이되며, '桑(喪)'과 호응을 이룬다. "遺陰桑(喪)次"는 平陰津을 잃었으며, 周 왕실의 卿士 직위를 상실했음을 말한다.[40]

〔7〕整理者(2016): 遺는 '隤'의 통가로, ≪左傳≫隱公11年에 周桓王이 鄭나라 사람 蘇忿生에게 준 田이며, 河南 獲嘉縣의 서북쪽에 있다. 樂地는 미상이다.

〔8〕整理者(2016): ≪春秋≫桓公5年(周桓王13年, 鄭莊公37年)에 "가을에 蔡나라 사람, 衛나라 사람, 陳나라 사람이 왕을 따라 鄭나라를 정벌하였다"고 했다. ≪左傳≫에 "가을, 王이 諸侯들을 동원하여 鄭나라를 쳤는데, 鄭伯이 이에 맞섰다", "王의 군대가 대패하였다. 祝聃이 왕의 왕에게 활을 쏘아 어깨를 맞혔다."고 했다. ≪春秋≫는 戰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左傳≫에서는 "繻葛에서 전쟁을 하였다(戰於繻葛)"고 했는데, 顧棟高[41]는 이곳이 長葛이라고 주장했다.

---

38) 위【주석3】〔5〕에서 ≪左傳≫隱公11年의 기록을 인용한 바 陰(平陰津)은 주 환왕이 정으로부터 빼앗은 鄇, 劉, 蔿, 邘의 땅 중 위읍(蔿邑) 부근의 땅으로 생각된다. (위읍(蔿邑)은 하남성 맹진현(孟津縣) 동북쪽에 있다. - 장세후, p.183, 주77)

39)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6.04.16.

40)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6.04.16.

41) 顧棟高(1679~1759)는 清 無錫(지금의 江蘇)사람으로, 젊은 시절 經學을 연구하였고 ≪春秋大事表≫ 五十卷을 저술하였다.

www.kci.go.kr

【간문 번역4】

先君이신 莊公 대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濟水 변에 있는 酄戎을 공략하여 우리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42] 북쪽으로는 溫과 原에 城을 쌓았으며, 陰 땅을 잃었고[43], 周 왕실의 卿士 직위를 상실했습니다.[44] 동쪽으로는 隤地와 樂地를 개척하였으며, 우리는 長葛의 전투에서 周王을 내쫓았습니다.[45]

【간문5】[46]

枼 (世) 及 虘 (吾) 先君邵公、剌 (厲) 公, 殹 (抑) 天也, 亓 (其) 殹 (抑) 人也, 爲是牢 鼢 (鼠) 〔1〕不能同穴, 朝夕 豉 (鬥) 戝 (鬩) 〔2〕, 亦不 𩙿 (逸) 〔3〕斬伐〔4〕。

世及吾先君邵公、厲公, 抑天也, 其抑人也, 爲是牢鼠不能同穴, 朝夕鬥鬩, 亦不逸斬伐。

---

42) 馬楠(2016)은 이에 대해 "戎을 정벌하여 齊를 도왔고 동으로 세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이로써 兩周 교체 시기 정나라의 세력범위는 단지 황하이남, 成周의 '湊洧之間'에 국한되지 않고 황하이북, 태행산맥 이남과 후에 晉나라에 귀속된 南陽지역까지를 포함하여 淇衛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고 하였다.

43) 기원전 712년 주 환왕은 멋대로 정나라의 鄔(지금의 하남성 偃師縣 서남) 등의 땅을 거두어들이고, 대신 周의 溫(지금의 하남성 溫縣 서남) 등의 토지를 주었다. 鄔는 황하의 남안인 정나라에 가까운 땅인 것에 비해, 溫은 황하의 북쪽에 있는 땅이어서 정나라 사람들은 이 교환에 불만을 품었으며 또한 주어진 온 땅은 원래 주왕이 천신의 명을 받아 지신에게 맹세하는 곳으로, 이를 멋대로 교환한 것은 주왕 스스로 자신의 배후에 있는 종교적 권위를 부정한 셈이었다. 이러한 교환을 싫어한 정나라의 장공은 마침내 주 왕실에 대한 조근을 그만두어 버렸다. (가이즈카 시게키 외. pp.244-245)

44) ≪左傳≫桓公5年에 "여름, 주나라 왕이 정백의 참정권을 빼앗으니 정백이 입조하지 않았다.(王奪鄭伯政, 鄭伯不朝)"고 하여 이에 대한 자세한 경과가 설명되어 있다. (장세후, p.237, 주15)

45) (장공이 주 왕실에 대한 조근을 그만두어 버리자) 이에 노한 환왕은 기원전 707년 蔡, 衛, 陳 등의 제후 군대를 모아 직접 정나라 정벌에 나섰으나 오히려 패배하고 환왕 자신도 정나라의 장군 祝聃이 쏜 화살에 어깨를 맞아 부상당해 체면을 실추했다. (가이즈카 시게키 외. p.245) 주 왕실과 정 사이의 일련의 갈등은 ≪좌전≫ 隱公 3년 가을, 6년 겨울, 11년 가을(7월), 桓公 원년 봄, 5년 여름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46) 장공 사후 邵公과 厲公시기에 있었던 후위를 둘러싼 내란과 국력 침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www.kci.go.kr

【주석5】

〔1〕牢鼠는 즉 두더지(鼴鼠)로 추정된다. 牢는 摟를 말한다.[47] ≪爾雅・釋詁上≫에 "摟는 모으다(聚)의 뜻"이라고 했다. 郝懿行 義疏에 "今俗語, 以牢搜爲聚也(今俗語로 牢搜는 모이다(聚)의 뜻)"이라고 했다. 今俗語에 쇠써레로 땅을 갈아 흙을 고르는 것도 또한 '摟地'라고 한다. 두더지(鼴鼠)는 黃河 중하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앞 다리가 강대하고 다섯 발가락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땅을 파는데 유리하다. 낮에는 동굴에 숨어 지내고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한다. 古人들이 '牢鼠'라고 불렀던 동물도 땅속 동굴에 살며 흙을 파는데 능하다. ≪說文≫에 "螻는 땅강아지(螻蛄)이다." 螻의 이름은 그 앞발이 크고 대패(鏟) 모양을 하고 있어 땅을 파기 좋아서 붙여진 것이다. 두더지(鼴鼠)는 홀로 단독으로 생활하며, 수컷 두더지는 짝짓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극렬한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 이는 簡文에서 언급한 "爲是牢鼠不能同穴, 朝夕鬥鬩"의 내용과 부합된다.

〔2〕整理者(2016): 戕 戕 는 鬥鬩의 통가이다. ≪詩・常棣≫에 "兄弟鬩于墻, 外御其務(형제가 집안에서는 다퉈도 외침은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毛傳에 "다투다(很)의 뜻"이라고 했다.

〔3〕逸은 좋아하다(樂), -에 기뻐하다(樂於)의 뜻이다. ≪書・酒誥≫에 "爾乃自介用逸(그대들은 스스로 도와 즐길 수 있게 될 것이요)"라고 했는데, 孫星衍 今古文註疏에 "逸은 좋아하다(樂)의 뜻"이라고 했다. ≪王褒<聖主得賢臣頌>≫에 "勤於求賢而逸於得人(현자를 구함에 근면히 하고 사람을 얻음에 좋아하고)"라고 했는데, 張銑 注에 "逸은 좋아하다(樂)의 뜻"이라고 했다.

〔4〕斬伐은 정벌하다(征伐)의 뜻이며, 여기서는 강토를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詩・小雅・雨無正≫에 "降喪饑饉, 斬伐四國(기근을 내려 상하게 하고 온 나라를 베고 치시나니)"라고 했다.

www.kci.go.kr

【간문 번역5】

47) 張儒・劉毓慶, ≪漢字通用聲素研究≫, 山西古籍出版社, 2002. p.127【牢通婁】항목 참조.

先君이신 邵公과 厲公에 이르러서는, 아아, 하늘의 정함인지, 아니면 사람의 탓인지 마치 두더지가 한 동굴에서 지낼 수 없듯이 아침저녁으로 서로 싸움만 하고, 강토를 넓히기 위한 정벌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간문6】[48]

今及吾君, 弱 (幼) 而 (嗣) 長〔1〕, 不能莫 (慕) (吾) 先君之武 (轍)〔2〕 (莊) (功)〔3〕, 印〔4〕<抑>〔5〕涇<淫> (嫮)〔6〕于庚 (康)〔7〕, (獲) 皮 (彼) (莉) 俑 (寵)〔8〕, (爲) 大亓 (其) 宮, 君而 (狎) 之, 不善 (哉) ! 君女 (如)〔9〕由〔10〕皮 (彼) 孔 (叔) 、 (佚) 之 (夷) 、帀 (師) 之佢鹿、 (堵) 之俞 (彌)〔11〕, 是四人者, 方〔12〕諫 (吾) 君於外, 茲〔13〕 (詹) 父〔14〕內謫〔15〕於中, 〔六〕君女 (如) 是之不能茅 (懋) , 則卑 (譬) 若疾之亡 (無) (醫)〔16〕。君之亡 (無) (問) 也, 則亦亡 (無) (聞) 也。君之亡 (無) 出也, 則亦亡 (無) 內 (入) 也。戒之 (哉) , 君。 (吾) 若 (聞) 夫 (殷) 邦, 庚 (湯) 爲語〔17〕而受亦爲語〔18〕。

今及吾君, 弱幼而嗣長, 不能慕吾先君之武轍莊功, 抑淫嫮于康, 獲彼莉寵, 爲大其宮, 君而狎之, 不善哉！君如由彼孔叔、佚之夷、師之佢鹿、堵之俞彌, 是四人者, 方諫吾君於外, 茲詹父內謫於中, 君如是之不能懋, 則譬若疾之無醫。君之無問也, 則亦無聞也。君之無出也, 則亦無入也。戒之哉, 君。吾若聞夫殷邦, 湯爲語而受亦爲語。

【주석6】

www.kci.go.kr

48) 앞에서 선대 군주들의 치적에 대해 개괄한데 이어 태백이 문공에게 간하는 간언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경계의 말과 구체적인 조언을 담고 있다.

〔1〕鄔可晶(網名"紫竹道人"): 從'子', '辛+巳(辞)'聲의 이 글자는 아마도 '嗣'의 異體자가 아닐까 추정되며, '嗣(계승하다)'와 '長(우두머리가 되다)'은 모두 동사이다. 이 문장은 우리 군주는 어린 나이에 군주의 자리를 이어받아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49]

〔2〕 敔 은 '轍'의 통가이며, 길(道路), 법칙(法則)의 뜻이다. ≪楚辭·思美人≫에 "知前轍之不遂兮, 未改此度(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라고 했으며, 陶淵明≪詠貧士之一≫에 "量力守故轍, 豈不寒與飢?(힘 헤아려 본래의 길 지키니 어찌 얼고 굶주리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3〕武轍莊功은 武公의 길과 莊公의 功績을 가리킨다.

〔4〕石小力(2016): 이 글자는 마땅히 '印'으로 보아야 한다. 乙本이 訛字가 많은 것으로 보아 乙本의 '孚'는 '印'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글자는 簡文에서 접속사 '抑'으로 쓰였다.[50]

〔5〕網友"明珍": 여기의 '抑'은 게다가의 뜻을 나타낸다.[51]

〔6〕整理者(2016): ' 叒 '字는 또 包山簡二七八와 上博簡≪容成氏≫第三十八簡에도 보인다. 後者는 "瑤臺"라고 했다. 簡文에서는 '嫾'의 통가이다. ≪方言≫에 "嫾는 놀고 즐기다(遊)의 뜻"이라고 했다.

〔7〕整理者(2016): 康은 ≪爾雅·釋詁≫에 "즐기다(樂)의 뜻"이라고 했다. 清華簡<厚父>[52]에 "不盤于康(늘 즐거운 것은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陳曼簠 (≪集成≫四五九五—四五九六) 에 "齊陳曼不敢逸康(齊의 陳曼은 감히 안일하게 즐기지 않고)"라고 했다.

〔8〕整理者(2016): 倗은 '寵'의 통가이다. 문공이 부인으로 삼은 초나라 여자 미씨(羋氏)를 말한다.

---

49)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17樓, 2016.04.18
50)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6.04.16
51)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32樓, 2016.04.22
52)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伍)≫(2015)에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은 周나라 天子와 夏나라의 후예 간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天命을 두려워하고 民心을 잘 이해하여 백성을 잘 다스라는 治國之道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www.kci.go.kr

〔9〕如는 마땅히 '不如'로 풀이해야 한다.[53]

〔10〕整理者(2016): 由는 등용하다(用)의 뜻이다.

〔11〕整理者(2016): ≪左傳≫僖公3年에 "楚人伐鄭, 鄭伯欲成. 孔叔不可, 曰: '齊方勤我, 棄德, 不祥'(초나라가 정나라를 정벌하자 정문공은 강화를 맺으려 했다. 공숙이 반대하며 '제나라가 우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은 상서롭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는 鄭文公16年의 일이다. ≪左傳≫僖公20年에 "夏, 鄭公子士洩堵寇帥師入滑(여름에 정나라 공자 사설과 도구가 군사를 거느리고 활나라에 쳐들어갔다)"고 했는데, 이는 鄭文公33年의 일이다. ≪左傳≫僖公24年에 "鄭公子士洩堵俞彌帥師伐滑(정나라 공자 사설과 도유미가 군사를 거느리고 활나라를 쳤다)"고 했는데, 이는 鄭文公37年의 일이다. 종전의 학설에서는 모두 '公子士'와 '洩堵俞彌'라고 보았으며, '洩堵'를 '俞彌'의 성씨로 간주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左傳≫宣公3年에 鄭文公은 "娶于江, 生公子士(문공은 또 강나라에서 부인을 맞아 공자 사를 낳았다)"고 했다. 公子 士는 아마도 '士'와 '洩'이 하나는 이름(名)이고 하나는 자(字)이거나, 또는 이름인 '士洩'을 한 글자로 '士'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晉文公 重耳를 '晉重'이라고 한 것과 같다. ≪左傳≫僖公30年에 정나라 대부 일지호(佚之狐)가 (정나라 임금에게) 촉지무(燭之武)를 천거하여 진나라 목공에게 사신으로 보내 진나라 군사를 물러나도록 하라고 간한 것이 鄭文公43年의 일인데, 簡文의 '佚之夷'와 동일인인지 모르겠다. 또 ≪左傳≫僖公7年(鄭文公20年)에 管仲이 "鄭有叔詹、堵叔、師叔三良爲政(정나라에는 숙첨, 도숙 그리고 사숙과 같은 훌륭한 신하들이 정치를 맡고 있으니)"라고 했는데, 이는 簡文의 '詹父', '堵俞彌', '師之佢鹿'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方은 情態方式을 표시하는 것으로, '一併(같이, 모두)'에 해당한다. ≪書・微子≫에 "小民方興, 相爲敵讎(백성들의 (원성이) 함께 일어서 (백성과 벼슬아치가) 서로 대적하여 원수가 되어가니)"라고 했는데, 孫星衍 疏에 "方이라는 것은 ≪漢書・敘傳≫에서 '晉灼이 함께, 아울러(並)의 뜻'이라고 했다"고

53) 沈培, <由上博簡證"如"可訓爲"不如">, 簡帛網, 2007.07.15.

www.kci.go.kr

했다.

〔13〕茲는 ≪古書虛字集釋≫에 "'茲'는 '而'와 같다"고 했다.[54]

〔14〕整理者(2016): 詹父는 叔詹이다.[55] 또 ≪左傳≫僖公22年과 23年에 보이며, ≪國語·晉語四≫와 ≪呂氏春秋·上德≫에는 '被瞻'으로 되어있고, ≪韓非子·喩老≫에는 '叔瞻'으로 되어 있다.

〔15〕整理者(2016): 謫은 ≪左傳≫成公17年에 "國子謫我"라고 했는데, 杜注에 "견책하다(譴責)의 뜻"이라고 했다.

〔16〕整理者(2016): 瘖 은 從疒, 音 聲의 글자이다. (이 글자는 ≪禮記·內則≫의 '醷'자인데) 鄭司農은 이 '醷'를 ≪周禮·酒正≫의 '醫'라고 풀이했다.

〔17〕爲는 被(-하게 되다)의 뜻이다. 語는 의견을 주고받다(議論), 이야기를 주고받다(談論)의 뜻이다. ≪說文≫에 "語는 논하다(論)의 뜻"이라고 했다.

〔18〕湯은 긍정적으로 논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紂는 부정적으로 논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太伯은 이로 警戒를 삼아 文公이 商湯을 본받아 후세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아야지, 紂王처럼 음탕하고 無道한 인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간문 번역6】

오늘 우리의 군주이신 당신에 이르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시어 보위에 오르셨으나 선군이신 武公이 걸으신 길과 莊公의 공적을 우러러 받들어 따르지 않고 게다가 향락에 빠져 楚나라 여자를 寵姬로 들이셨으며 그녀를 위해 宮室을 확장하고 가까이 寵愛하시니 좋지 않습니다! 군주께서는 저 孔叔, 佚之夷, 師之佢鹿, 堵之俞彌 등을 임용하시어 이 네 사람은 밖으로부터 조정에서 간언을 드리게 하시고, 詹父는 (가족의 일원으로) 안으로부터 내밀히 견책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만일 군주께서 이와 같이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병을 얻었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군주께서 묻지

www.kci.go.kr

54) 俞敏監修, 謝紀鋒編纂, ≪虛詞詁林≫,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p.427
55) 叔詹은 春秋 시기 鄭나라 文公의 아우이며, 鄭나라 재상을 지냈다.

않으시면 듣는바 또한 없습니다. 내놓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군주시여! 삼가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 殷나라의 湯도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紂 또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고 臣은 들은 듯합니다.

4. 맺음말

이상 清華簡 <鄭文公問太伯>의 개요와 시대적 배경을 개괄하고 죽간 전문을 주해하였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죽간은 태백의 간언을 통해 정나라 초기 군주들의 업적과 당시의 사실을 간명하게 밝힘으로써 鄭의 초기 역사를 압축적으로 기술하고 아울러 주 왕실의 동천을 전후한 시기를 비롯한 東周 초기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역사적 사실 연구에 가치가 큰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서주 정치문화의 중요요소로 자리 잡은 '規諫' 전통을 잘 드러내는 문헌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본고에서는 앞부분에서의 개괄과 본문의 주석을 통해 본 죽간 내용과 관계되는 역사적 사실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죽간의 내용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했기 때문이며 중국 고대사나 제도에 대한 지식이 미천한 필자에게는 애당초 힘든 일이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이 부분에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하고 보아주기 바라며, 향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연구해줄 것을 기대한다. 아무쪼록 본고가 본 죽간 내용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www.kci.go.kr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參)≫, 上海: 中西書局, 2012.

李學勤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 上海: 中西書局, 2016.
曹方向, <清華六"饋而不二"試解>, 簡帛網, 2016.04.22.
程燕, <清華六考釋三則>, 簡帛網, 2016.04.19.
代生, <清華簡(六)鄭國史類文獻初探>, ≪濟南大學學報≫ 28: 1期, 2018.
桂珍明, <清華六<鄭文公問太伯>"饋而不二"引喻考論>,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5.02.
郝花萍, ≪清華大學1藏戰國竹簡(陸)鄭國三篇集釋≫, 西南大學碩士論文, 2017.
華東師範大學中文系出土文獻研究工作室, <讀≪清華大學藏戰國竹簡(陸)・鄭文公問太伯≫書後(一)>, 簡帛網, 2016.04.20.
黃聖松・黃庭頎(2016a), <≪清華六・鄭文公問太伯≫札記>, 簡帛網, 2016.09.07.
黃聖松・黃庭頎(2016b), <≪清華六・鄭文公問太伯≫札記(二)>, 簡帛網, 2016.09.14.
簡帛網, 簡帛論壇, 簡帛研讀, <清華六<鄭文公問太伯>初讀帖>.
李鵬輝, <清華簡陸筆記二則>,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4.20.
李學勤, <有關春秋史事的清華簡五种綜述>, ≪文物≫, 2016: 3期.
劉光, <清華簡<鄭文公問太伯>所見鄭國初年史事研究>, ≪山西檔案≫, 2016: 6期.
馬楠, <清華簡<鄭文公問太伯>与鄭國早期史事>, ≪文物≫, 2016: 3期.
清華大學出土文獻讀書會, <清華六整理報告補正>,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網, 2016.04.16.
蘇建洲, <≪清華六・鄭文公問太伯≫"饋而不二"補說>, 簡帛網, 2016.04.26.
徐在國(2016), <清華六<鄭文公問太伯>札記一則>, 簡帛網, 2016.04.17.
徐在國(2017), <≪詩·周南·葛覃≫"是刈是濩"解>,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7: 5期.
王寧(2016a), <由清華簡六二篇說鄭的立國時間問題>,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4.20.
王寧(2016b), <清華簡六<鄭文公問太伯>之"太伯"爲"洩伯"說>, 簡帛網, 2016.05.08.
王寧(2016c), <清華簡六<鄭文公問太伯>的"縈軛""遺陰"解>,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5.16.
王寧(2016d), <清華簡六<鄭文公問太伯>"函""訾"別解>,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5.20.
王寧(2016e), <清華簡六<鄭文公問太伯>(甲本)釋文校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6.05.30.
吳良寶, <清華簡<鄭文公問太伯>"鄒"國補考>, ≪簡帛≫(第十四輯), 上海古籍出版社,

www.kci.go.kr

2017.
尉侯凱, <<鄭文公問太伯>(甲本)注釋訂補(三則)>, 簡帛網, 2016.06.06.
가이즈카 시게키 외, 배진영・임대희 옮김,≪중국의 역사≫(선진시대), 혜안, 2011.
김원중 역, ≪사기세가≫, 민음사, 2010.
김학주 역, ≪書經≫, 명문당, 2012.
리펑, 이청규 옮김,≪중국고대사≫, 한강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5, 2017.
문병순, <≪清華大學藏戰國竹書(參), 良臣≫篇譯註>, ≪중국어문논총≫ 58, 2013.
신동준 역, ≪국어(國語)≫, 인간사랑, 2017.
심재훈, <전래문헌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도전 - 청화간<계년>의 주왕실 동천>, ≪역사학보≫ 제221집, 2014.
이상옥 역, ≪禮記≫(중), 명문당, 1985.
이승률, ≪죽간・목간・백서, 중국 고대 간백자료의 세계≫, 예문서원, 2013.
이연주, 張崇禮, <清華簡<鄭武夫人規孺子>주해>, ≪중국학논총≫ 55집, 2017.03..
이중톈 저, 김택규 옮김, ≪중국사 5. 춘추에서 전국까지≫, 글항아리, 2015.
장세후 역, ≪춘추좌전≫(상), 을유문화사, 2012.
지재희・이준영 역, ≪周禮≫, 자유문고, 2002.
진래, 고재석・진성수 옮김, ≪중국고대사상 문화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8.

< Abstract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Zheng Wengong wen Taibo(鄭文公問太伯)> in Tsinghua Bamboo Slips

Lee, Yeonju・Zhang, Chongli

Zheng Wengong wen Taibo(鄭文公問太伯) is one of the five old documents contained in the 6th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It contains the dialogue between the Duke Wen of Zheng(鄭文公)

www.kci.go.kr

and Taibo(太伯), the prime minister, and adopts the form of Duke Wen inquring after Taibo's health and Taibo expostulating with Duke Wen concerning governing the nation. The document describes the early history of Zheng in a condensed manner and, in doing so, illustrates the situation of the East Zhou period around the eastward evacuation(東遷) of the royal house.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document in the study of history and state of the nation at that time. It is also an interesting document in the light of the tradition of expostulation during the Zhou dynasty. This paper makes an exegesis of the document with some explanatory notes.

Key words: Duke Wen of Zheng(鄭文公), Taibo(太伯), Zheng(鄭), East Zhou(東周), eastward evacuation of Zhou(周 東遷), Duke Huan of Zheng(鄭桓公), Duke Wu of Zheng(鄭武公), Duke Zhuang of Zheng(鄭莊公), Duke Zhao of Zheng(鄭昭公), Duke Li of Zheng(鄭厲公), King Ping of Zhou(周平王),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8. 10. 23	2018. 11. 13	2018. 11. 21	2018. 11. 30	2018. 12. 31

www.kci.go.kr

www.kci.go.kr